



News 1947년 5월 서울 초동(草洞) 현대자동차공업사 공장 한 편에서 출발한 현대건설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했다. 현대건설은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끊어진 다리와 건물을 지으며 국토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다. 현대건설의 성장 이면에는 임직원의 땀과 열정이 쫄려 있다. 그리고 그 값진 땀방울이 현대건설을 글로벌 건설 리더로 우뚝 서게 한 저력이다. ▶ 관련기사 4, 5, 6, 7면

Korea's primary builder celebrates its 70th anniversary this year. It was in May 1947 that Hyundai E&C started its business in a corner of the factory of Hyundai Auto Service located in Cho-dong, Seoul. Since that, Hyundai E&C has been leading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y building roads, repairing broken bridges and constructing buildings in the wake of the Korean War. Painsstaking efforts and great passion of its employees have been behind the remarkable growth of the construction company. Their valuable efforts and hard work are an underlying force for the builder to develop into a global leading company in the construction sector. ▶ Continued on page 4, 5, 6, 7

고희(古稀) 맞은 현대건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선에서다

5월 25일, 창립 70주년 기념일 맞아 기념식·사옥투어 등 다양한 행사 진행

“오늘 이 자리는 찬란한 과거의 추억에 빠지기보다는 향후 10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다 함께 모색해 보자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5월 2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70주년 기념식 중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의 일성(一聲)이다.

1947년 5월 25일 ‘현대토건사’로 첫발을 내디딘 현대건설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했다. 현대건설은 ‘창조적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대한민국 건설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 왔다. 첫 해외 진출 사업인 1965년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수주’부터 2013년 ‘국내 최초 해외공사 누적 수주액 1000억 달러 돌파’, 2016년 4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건설업 세계 1위까지 현대건설은 건설업계의 만행으로 건설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창립 70주년 기념사에서 정 사장은 “세계 기업들의 평균수명은

약 13년으로 30년이 지나면 80%의 기업이 사라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사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100년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건으로 네 가지 T를 제시했다. ‘4T’는 ▶ 신뢰(Trust): 품질, 안전, 투명성 ▶ 변화와 혁신(Transformation):

매너리즘, 폐쇄 혁파 ▶ 기술 개발 (Technology): 미래건설의 핵심 ▶ 미래 (Tomorrow): 지향점 등으로, ‘현대’라는 사명(社名)에도 미래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또 “70년 동안 내려온 현대건설의 유산을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자부심과 주인 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격

려하며 “전후 대한민국 국토개발과 현대화, 세계화에 젊음과 인생을 바쳐 헌신한 선배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 직원 축하메시지 영상 ▶ 창립기념 영상 ▶ 70주년 기념사사 소개 및 증정식 ▶ 사장님 말씀 ▶ 기념식수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창립기념일을 맞이해 ▶ 70주년 기념사사 전시 ▶ 해외 근무 임직원 가족 초청 사옥투어 등 창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도 진행됐다. 또한 ▶ 회사 광고 콘테스트 ▶ 안전 UCC 공모전 ▶ 우리 회사 응원 메시지 ▶ 내가 만드는 현대건설 아이디어 공모전 등 참여형 이벤트도 임직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At the starting line for the future: Hyundai E&C celebrates 70th anniversary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Hyundai E&C. Hyundai E&C made its first step as Hyundai Togun, also known as Hyundai Civil Works Co., on May 25, 1947. Since the establishment, Hyundai E&C has opened new chapters in Korean construction history. With its creative passion and spirit of challenge, Hyundai E&C has been lead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the country's primary builder: In 1965, the company was awarded an order to build the Pattani-Narathiwat Highway in Thailand, and the revenue from overseas contracts surpassed the 100 billion dollar mark in 2013. Furthermore, it ranked at the top of the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for four consecutive years in 2016.

In the 70th anniversary ceremony, CEO Jung Soo-hyun

gave a highlight to 4Ts in an aim to become a centennial company amid the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and neck to neck competitions. Four 'Ts' refer to "trust" in quality, safety and business transparency, "transformation" for a break from old practices and mannerism, "technology" for tapping into a niche marke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tomorrow." As for "tomorrow," he stressed that it is a mission of Hyundai E&C employees to have a future-oriented attitude at work.

The ceremony started with the introduction of congratulatory messages from employees,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celebration video, the presentation of the company history book, the special speech by CEO and commemoration planting.

개발도상국 주민들을 위한 ‘릴레이사회공헌’을 펼치다

인도네시아 사랑의 헌옷·아동복 모으기 행사... 스리랑카 어린이센터 완공

우리 회사가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개발도상국 지역 주민들을 위한 릴레이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우리 회사는 5월 15일부터 사흘간 ‘창립 70주년, 인도네시아 사랑의 헌옷·아동복 모으기’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24기 차세대 리더보드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기획한 이번 행사는 임직원이 평소 잘 입지 않는 옷과 신발을 개발도상국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사와 국내 현장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옷과 신발 8713점이 모였으며, 힐스테이트 배구단 선수들도 유니폼과 배구용품 20여 점을 기증해 뜻을 함께했다. 이날 모인 물품은 우리 회사의 인도네시아 질레본II 석탄화력발전소, 사물라 지열발전소 현장 인근의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5월 24일 서울 계동 본사 사옥에서 열



인도네시아 사랑의 헌옷·아동복 모으기 행사(왼쪽), 스리랑카 어린이센터 준공식(오른쪽)

린 전달식에는 변동언 전력사업본부장, 차세대 리더보드 등 관계자가 함께했다. 스리랑카에서도 우리 회사의 따뜻한 행보는 계속됐다. 지난 4월 28일, 스

리랑카에서 어린이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준공식이 열렸다. 우리 회사의 후원으로 건립된 어린이센터는 1~3층 규모로, 지역 아이들의 배움의 터전

이 될 예정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우리 회사 스리랑카 킬시티 프로젝트의 김태희 소장을 비롯해 장원삼 주스리랑카 대한민국의대사, 권혁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건축 경과 보고 ▶격려사 및 축사 ▶축하 공연 등 다양하게 꾸며졌다.

우리 회사는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현장과 연계해 현재까지 총 15개국에서 27개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이다. 임직원 끝전모금액, 정부지원금 등을 합친 사업금액도 4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미얀마를 비롯해 필리핀·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에콰도르 등 총 6개국에 사랑의 손길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림사 소식

현대자동차, 쏘나타 뉴 라이즈 하이브리드 출시

현대자동차가 쏘나타(LF)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쏘나타 뉴 라이즈(New Rise)’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5월 18일부터 시판한다. 쏘나타 뉴 라이즈 하이브리드는 지난 3월 출시 후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쏘나타 뉴 라이즈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계승했지만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브리드가 100만 원 보조는 물론 차량 등록 시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 감면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는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쏘나타 뉴 라이즈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배터리 평생보증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10년 20만km 보증 ▶중고차 최대 3년 62% 잔가 보장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함께 시행한다.



CSR activi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Our company conduc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ahead of its foundation day in a bid to support local resident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three-day CSR program was held from May 15 to collect secondhand clothes and shoes. As

part of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our company, the 24th Next Leader Board organized the event designed to collect old clothes and shoes from our employees and deliver the collection to residents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Indonesia. Our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working at the head office and domestic construction sites donated 8,713 pieces of clothing and shoes. The collected items will be delivered to local residents living near the Cirebon II coal-fired power plant and the Sarulla geothermal power plant construction

sites in Indonesia.

Our company held a building dedication ceremony in Sri Lanka on April 28 to celebrate the completion of the refurbishment of Children’s Center. The three-storey building is expected to serve as a home for learning for local children.

현대모터스튜디오, ‘침묵 속의 시간’ 전시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서울 강남구 소재)이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1층 전시 공간을 새단장한다. 현대자동차는 브랜드 체험관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1층에 해외 유명작가 다니엘 아삼의 전시 ‘Time in Silence(침묵 속의 시간)’을 5월 2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새로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니엘 아삼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로 예술과 건축, 퍼포먼스의 경계를 허무는 폭넓고 통합적인 작품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설치작품인 ‘Ash and Steel Stage Set(재와 강철의 무대 세트)’ ‘Hourglass(모래시계)’ 등이 공개된다.



HMC투자증권, 종로지점 이전 오픈

HMC투자증권이 기존 강북지점의 명칭을 종로지점으로 변경하고, 이전 오픈했다.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1 라이온스회관 1층에 위치한 종로지점은 현재 오픈 기념으로 고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지점 이전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했다”며 “고객들이 한층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전화 02-776-8260



U-20 월드컵 우루과이 대표팀 초청 문화체험 행사



우리 회사가 U-20 월드컵 출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우루과이 축구 대표팀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5월 16일 글로벌마케팅본부 이혜주 전무를 비롯한 임직원, 우루과이 선수, 스태프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Fabian Coito 감독과 우루과이 선수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을 둘러보고, 기념품 등을 교환하며 한국 문화를 경험했다.

상반기 구매본부 협력사 간담회 실시

주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연이어 열렸다. 우리 회사가 4월 27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상반기 H Leaders 분과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주요 협력사와 밀접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원자재·건축재·플랜트·인프라·주·건축외주·기전외주 분과의 146개 협력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업계 동향, 멤버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26일 구매부문 협력사 61개사를 도곡동 힐스테이트 갤러리로 초청해 ‘상반기 구매부문 H Members 간



담회’도 실시했다. 원자재·건축재·물류·플랜트·재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는 ▶디에이치 브랜드 홍보 ▶부정청탁방지법 교육 ▶분과별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향후 ‘외주부문 H

Members 간담회’는 6~7월 중 진행 예정이다. 구매본부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개선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협력사 관련 제도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1공구) 축조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최근 기술형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1공구) 축조공사를 수주했다. 조달청(수요처: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동해지구 전면 해상에 방파호안(539m), 동방파제(150m), 친수호안

(759m)을 짓는 공사다. 공사금액은 1903억원(당사분 765억원)으로,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50개월이다. 한편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완공 후 동해항의 만성적인 선박 입항 지체율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캠벨·황민경 영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이 최근 미국 출신 다니엘라 엘리자베스 캠벨(24)과 전 GS칼텍스 소속의 황민경(27) 선수를 영입했다. 189cm의 큰 키에 푸에르토리코와 스위스에서 활약한 경력을 지닌 캠벨 선수는 2015년에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상(Most Outstanding Player)을 받기도 했다. 황민경 선수는 2008년 열린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순위로 도로공사의 지명을 받아 V리그에 데뷔해 프로 입단 후 아포짓 스파이커(라이트)로 뛰다가 레프트로 자리를 옮겼다. 현대건설 배구단 이도희 감독은 “라이프와 레프트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황민경 선수와 몸놀림이 빠르고 리시브가 가능한 캠벨 선수를 보강한 만큼 현대건설 배구단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70년 역사 담은 사사(社史) 발간

창립 70주년을 맞아 우리 회사가 걸어온 발자취와 업적을 담은 『현대건설 70년사』를 발행했다. 『현대건설 70년사』는 ‘열다, 짓다, 잇다’를 콘셉트로 읽기 쉬운 사사에 초점을 맞춰 제작됐다. 총 3권이 한 세트 구성된 『현대건설 70년사』는 ▶현대건설 특유의 도전정신과 DNA를 담은 ‘기업문화사’ ▶주요 프로젝트를 공정별로 나눠 소개한 ‘프로젝트사’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성장 스토리를 정리한 ‘통

사’로 구성됐다. 70년 사사는 사내 그룹웨어와 현대건설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볼 수 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각 권이 손에 쉽게 잡히고 읽기 좋게 구성한 것이 이번 사사의 특징”이라며 “창립 70주년을 맞아 해 계동사옥 1층 로비와 5층 미팅룸에 누구나 직접 사사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한 만큼 임직원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현장부서 소식

연구개발본부, 싱가포르 준설도 정화 실증플랜트 시연회

연구개발본부가 5월 16, 17일 양일간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원 매립공사(SIPO1) 현장에서 싱가포르 MPA(해양부), MND(국토개발부) 등 유관 정부부처와 주싱가포르(JTC) 경영진을 대상으로 기술시연회를 진행했다. 연구개발본부 이석홍 본부장과 에너지·환경연구개발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번 시연회는 우리 회사의 준설도 정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 향후 유사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회사는 싱가포르 JTC와 한국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 아래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SIPO1 현장에 준설도 정화 실증플랜트를 성공적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다.



New tours highlight old culture

May 06

Going for the new thing than what's old is ironically bringing people to experience the traditional cultural activities in Korea that recently had been neglected. Nighttime tours of palaces sell out within a minute from tickets becoming available online, and more people rent hanbok, traditional Korean garments, and wear them to walk around the historic sites. These things are proof that historic assets have become an essential part in travels across Korea.

Sensing the new tre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been working to set up more diverse activities to stoke interest in Korean tradition. The ministry has released a list of 10 activities in which many can learn more about how ancient Koreans lived. Visitors can see how Koreans from the prehistoric age lived on the peninsula, or try to paint as if they were an artist in the Joseon Dynasty (1392-1910). The programs have been selected by both the cultural ministry and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since last



Wolbong seowon, a Joseon-era study spot in Gwangju.

year. Among many available programs, five were chosen last year, and another five this year.

In Gwangju, visitors can live like a Joseon-era aristocrat and in Sancheong they can take a look at herbs used for medicinal purposes. The Gwangju program is at Wolbong Seowon, which used to be a study house for young aristocrats, and there is an option to spend a day as a Joseon-era aristocrat. Sancheong, a town where Joseon-era doctor Heo Jun wrote a medicinal book titled "Donggubogam," has programs including a medicinal spa.

Gyeongju's program to take visitors to historic sites both during the day

and at night is popular. The city ran the program twice a month from March to October last year. The same program is available only once a month this year from 4 to 9 p.m. on the fourth Saturday of each month, and takes tourists

to places including Bulguk Temple during the day, and then toward Cheomseongdae, an astronomical observatory built during the Shilla Dynasty (57 B.C. to A.D. 935).

The five programs designated for this year are still in the making, as the cultural ministry and the state-run tourism organization are working to make the program fun for many. A painting class in Haenam may catch the most attention. It takes visitors out to work around the areas artists from the past favored, and to see the landscapes that the artists used to put to paper. This program is an overnight one, and will be available beginning in June. Ulsan's Ulju County, known for its pottery, will have programs where visitors can make their own. The program will be available every Saturday from June 10 to Nov. 18. *By KOREA JOONGANG DAILY*

Korean traditional culture activity programs

REGION	PROGRAM	PHONE NUMBER
BUSAN	MAKING TRADITIONAL MASKS AND KITES	051-555-0092
GANGHWA	MAKING TEXTILE PATTERNS AND FORAGING LIKE PRIMITIVES	032-934-1400
GANGNEUNG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SHIN SAIMDANGR	033-647-6802
GWANGJU	SPENDING A DAY AS AN ANCIENT SCHOLAR	062-960-8272
GYEONGJU	TOURING THE CITY DURING THE DAY AT NIGHT	054-774-1950
HAENAM	LEARNING THE IDEAS FROM ARTISTS WHO PAINT	063-282-3072
JEONJU	MAKING CRAFTWORKS WITH TRADITIONAL PAPER	063-282-3072
SANCHEONG	LEARNING HOW TO MAKE HERBAL MEDICINES	055-973-2171
ULSAN	VISITING A VILLAGE THAT MAKES POTTERY	052-227-4960
YEONGJU	TRYING DIFFERENT TRADITIONAL SNACKS	054-630-1721

Kospi firms' Q1 profit growth hints at recovery

May 17

Sign of steady recovery in Korea's economy emerged on May 16 when the Korea Exchange revealed that profit at companies listed on the local stock market improved significantly during the first quarter. The combined revenue of 536 companies listed on the benchmark index, the Kospi, rose 8.35 percent from last year's first quarter to total 455.6 trillion won (\$410 billion). Operat-

ing profit rose 25.34 percent to 38.9 trillion won, and net profit surged 35.77 percent to 32.2 trillion won. The figures are a stark contrast to a year ago, when the combined revenue of listed companies barely changed in the first quarter, only inching up 0.24 percent from 2015.

The operating profit of the Kospi's top 10 companies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of the combined operating profit, 56.39 percent or 21.9 trillion won,

indicating the dominance of conglomerates in the index's performance. Their net profit made up 54.99 percent. When excluding heavyweight Samsung Electronics, though, companies still performed strongly in the first quarter. Companies that saw net profit accounted for 79.47 percent, or 426 companies, on the index, while those that reported net losses amounted to 110. Market analysts have pointed to restructuring

efforts at companies and recent double-digit growth in Korea's exports as major contributors to the improvement.

By industry, 15 saw revenue expand. Medical precision firms' revenue rose at the sharpest rate, 32.5 percent, followed by steel and metal with 23 percent, chemicals with 17.8 percent, services with 16 percent and electronics with 12.61 percent.

By KOREA JOONGANG DAILY

Group News

Two in a row for Hyundai Motorsport as Neuville triumphs in Argentina thriller



April 30, 2017-In one of the most electrifying WRC finales in memory, Hyundai Motorsport has claimed a stunning victory in Rally Argentina, the fifth round of the 2017 FIA World

Rally Championship (WRC), with Thierry Neuville and Nicolas Gilsoul.

The result marks the team's second win in a row after Tour de Corse, and its fifth WRC victory in total. Not only is it the first time that Hyundai Motorsport has secured back-to-back successes, the Belgian crew also became the first repeat winners of the 2017 season.

With this result, the team has strengthened its grip on second place in the Manufacturers' Championship.

2017 Global Distributors Convention



From May 10 to 13, Hyundai Motor Company's Head of Subsidiaries and Distributors from all over the world gathered in South Korea for 2017 Global Distributors Convention.

South Korea was chosen as the venue for the event in recognition of 50 years of Hyundai's Legacy.

With the slogan '50 Years and More,' 284 participants from 132 countries shared Hyundai Motor Company's glorious past and pledged to build a brighter future.

During the CEO Conference, Hyundai Motor Company announced its vision to become a 'Top Tier Automotive Brand' by providing the 'Highest Value' to our customers worldwide.

10 minute Korean Lessons



Basic

Please take good care of your health.
건강 잘 챙기세요.

Situational context

Yeong-min has been coughing all morning in the office. Michael wants to express his concern about this. At this point, he can say, "건강 잘 챙기세요."

Dialogue

마이클 영민 씨, 감기에 걸렸나 봐요. 건강 잘 챙기세요.
Yeong-min ssi, gamgi-e geolyeonna bwayo. Geon-gang jal chaenggiseyo.

Michael Yeong-min, you sound like you've caught a cold. Please take good care of your health.

One more expression

Busy people in this day and age want to wish each other a healthy life, so they may greet each other like this: "식사 잘 챙겨 드세요." (Please don't miss a meal.)

Intermediate



How to ask someone to take a photo for you.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Situational context

Michael wants to take a picture with his friend in front of a nice looking building. So, he wants to ask a passerby to take a photo for them. At that point, he can say,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Dialogue

마이클 저,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Jeo, joesonghande sajin jom jijjeojusigesseoyo?

지나가는 사람 네, '김치' 하세요.
ne, 'Gimchi' haseyo.

Michael Excuse me, but can you take a photo for us?

Passenger Sure. Say 'Gimchi'

One more expression

'[Verb]-아/어 주시겠어요?' is used to ask a question to someone who you don't know well or is not a close friend. For example, "죄송하지만 시청에 어떻게 가는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Excuse me, but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or "살레지만 연필 좀 빌려 주시겠어요?" (Excuse me, but can you lend me a pencil?)

Please scan the QR code for more Korean language learning resources. Source: 세종 누리 학당(Nuri-King Sejong Institute) www.sejonghakdang.org



‘현대’라는 단어에는 앞서 가는, 모던한, 세련된 등의 의미가 있다. 故 정주영 명예회장은 1947년 창립 당시 ‘현대적’이란 단어에 ‘상상 속의 밝은 미래’라는 뜻을 담았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사명에는 미래를 열어 가는 도전정신과 창조·개혁 정신이 오롯이 녹아 있다. <사보신문>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현대건설의 오늘을 있게 한 뉴스들을 모았다. 10대 뉴스를 통해 건설 명가로서 그 명성을 굳건히 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고, 밝은 미래를 꿈꿔 보자. 글·정리·박현희



1947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건설의 오늘’을 만든 뉴스 10

1 1947년 신화(神話)의 시작 현대토건사

한국건설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시작은 1947년 5월 25일에 설립된 현대토건사다. 이듬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후 국가 재건을 위한 움직임이 크게 일자 현대토건사는 1950년 1월 10일 현대건설주식회사(現代建設株式會社)를 출범시켰다. 같은 해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온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다. 회사는 전쟁 중에도 파괴된 교량 복구, 미군 숙소 등을 지으며 다시금 규모를 확장해 나갔다.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내 대표 건설사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우수 물량 확보와 수익성 높은 토목공사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1958년 한강 인도교 복원 공사를 완료하고, 1959년 서울~수원, 서울~의정부 간 국도를 놓으며 현대건설의 이름을 알렸다.

Hyundai Togun
Hyundai E&C has been considered as a pillar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Its history traces back to Hyundai Togun established on May 25, 1947. Later, on January 10, 1950, Hyundai Togun turned itself into Hyundai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rporation in line with the national reconstruction movement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8.

2 1966년 국내 건설사 최초 해외 진출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우리나라의 첫 해외 공사 수주는 우리 회사가 1965년 수주한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다. 총연장 98km의 이 공사는 1966년 1월 착공해 1968년 3월 완공했다. 당시 국가적 경사로 여겨져 기술진과 근로자들이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장면을 방송국에서 생중계할 정도로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회사는 이 공사로 3억여원의 적자를 냈으나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무형의 이익을 거뒀다. 최초로 해외 진출에 성공한 건설사라는 타이틀과 함께 당시 국내 건설업체로서는 유일무이한 고속도로 건설 실적을 확보한 것이다. 우리 회사는 이를 토대로 베트남,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알래스카 등에 차례로 진출하며 글로벌 기업의 기틀을 닦았다.

Pattani-Narathiwat Highway in Thailand
Hyundai E&C entered the global construction market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by receiving an order to build the Pattani-Narathiwat Highway in Thailand in 1965. The overseas construction experience enabled Hyundai E&C to make inroads into the global markets such as Vietnam, Guam, Australia, Papua New Guinea and Alaska, laying its business foundation around the world.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3 1976년 20세기 대역사(大役事)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1970년대 중동으로 시야를 넓힌 우리 회사는 1975년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바레인 아랍수리조선소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 공사로 중동 진출을 공고히 한 회사는 1976년 6월 ‘20세기 최대의 역사’라 불리는 9억6000만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 건설 신화를 썼다. 주베일 산업항 공사의 성공

적인 수혜는 우리 회사의 시공능력을 세계에 알렸다. 특히 기계적 분야에 머물러 있던 OST(Open Sea Tanker Terminal) 건설 경험과 기술을 확보해 선진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던 해상구조물 건설 시장에서 동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주베일 산업항 완공 직후 우리 회사는 안부 액화가스 해상 터미널 등의 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며 해상구조물 건설에서 성과를 이어나갔다.

Jubail Industrial Port in Saudi Arabia
Hyundai E&C turned its eyes to the Middle East in the 1970s. It was awarded an order worth about 960 million dollars in June 1976 to build the Jubail Industrial Port in Saudi Arabia. Starting with the project, considered as one of the biggest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20th century, Hyundai E&C made a legend in the Middle East.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roject proved its excellent construction capability in the global stage.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4 2006년 아파트의 대명사 힐스테이트 론칭

우리 회사는 1964년 마포아파트 준공을 시작으로 1987년 우리나라 최초의 고층-대단지 아파트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을 지으며 아파트 건설 명가의 자존심을 이어 왔다. 새로운 브랜드 ‘힐스테이트’를 론칭한 것은 2006년 9월 28일이다. 서울숲 힐스테이트는 우리 회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적용한 첫 사례로 모델하우스 개관일(2006년 10월 11일)에 5만 명이 넘는 고객을 운집시키고, 전 평형이 1순위의 약에 약이 마감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힐스테이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아파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16년 7월 ‘The PROUD 대한민국 100대 상품’에 7년 연속 선정된 것은 물론, 10월에는 ‘2016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 100대 아파트 부문 1위’로 선정됐다. 또한 회사는 2015년 4월 프리미엄 브랜드 ‘더에이치(THI HI)’를 론칭하고, 2016년 8월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 ‘더에이치 어니힐즈’ 분양에 나섰다. 더에이치 어니힐즈는 평균 101대 1, 최고 1198대 1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며 나흘 만에 완판됐다.

Launch of Hillstate brand
Hyundai E&C introduced a whole new apartment brand Hillstate on September 28, 2006. Over the past decade, Hillstate has been in a strong position as a premium apartment brand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Last year, it was chosen as one of 100 Korean products labeled “The Proud” for seven consecutive years in July, and also selected as the Highest Brand of the year 2016 in the apartment category in October.

5 2009년 국내 첫 해외 원전 수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2009년 12월, 한국형 원전 수출의 길이 활짝 열렸다. 우리 회사가 대표 시공사로 참여한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이 UAE가 발주한 총 2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원자력발전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 이 공사는 1400MW급 한국형 원전 4기 설계와 건설은 물론, 준공 후 운영 지원과 연료 공급을 포함하는 일괄수출 계약 형태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준공예정일은 2020년 5월.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78년 7월 완공된 고리



6 2011년 아름다운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편입

1호기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스물한 번째, 동양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다. 당시 회사는 63억 3000만원 규모의 단순 시공만 맡았으나, 이는 원전 시공기술 국산화라는 큰 꿈을 꾸게 만들었다. 고리2호기 건설 후 회사는 고리2호기,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등 국내 원전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술자립도를 높였다. 그 결과 1996년 1월에 완공한 한빛3-4호기부터는 완벽한 시공기술 자립을 실현함으로써 원전기술 100% 국산화라는 에너지 자립의 꿈을 완성 단계로 올려놓았다.

Barakah Nuclear Power Plant in UAE
Hyundai E&C opened the door to exporting Korean-designed nuclear energy plants in December 2009. The KEPSCO-led consortium received a mega-sized nuclear power plant contract valued at 20 billion dollars from United Arab Emirates. Hyundai E&C is in charge of building four Korean-designed nuclear reactors, each with 1,400MW capacity. The construction is slated to be completed in May 2020.

7 2013년 전인미답의 대기록 해외 수주 누계 1000억 달러 돌파

우리 회사가 한국 건설사에 또 한 번의 대기록을 남겼다. 2013년 11월 해외 수주 누계 1000억 달러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운 것. 1966년 국내 건설사 최초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한 이래 48년에 걸쳐 쌓은 전인미답의 성과였다.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듬해에도 우리 회사는 약 110억 달러의 해외 수주 실적을 기록, 2012년 이후 3년 연속 연간 100억 달러 돌파의 기세를 이어나갔다. 현재(2017년 3월 기준) 회사는 세계 59개국에 진출, 총 821건에 이르는 해외 공사를 수주하며 ‘수주 강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Hyundai E&C successfully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its second research station in the Antarctic in February 2014. It had already established the King Sejong Station, Korea’s first research base in the South Pole, in March 1988.

인류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미답(未踏)의 땅, 남극. 우리 회사는 1988년 3월 대한민국 최초의 남극 과학연구기지인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한 데 이어 2014년 2월 두 번째 남극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를 세웠다. 장보고과학기지는 남극 대륙 동남단 테라노바 베이의 브라운닝(Browning)산에 위치해 있다. 총 면적 4458㎡ 규모의 장보고과학기지 공사는 총 1.2단계에 걸쳐 진행됐으며, 2012년 12월에 착공해 2014년 3월 완공됐다. 테라노바 베이에는 남극의 여름인 12월 하순부터 2월까지만 접근할 수 있어 실제 공사 기간은 6개월 남짓으로 짧았다. 우리 회사는 뛰어난 기술력과 도전정신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내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건설에 임했고,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쳤다. 현재 장보고과학기지는 제4차 월동연구단원들이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운영과 모니터링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Revenue from overseas contracts surpasses the 100 billion dollar mark
Hyundai E&C set a big recor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f Korea. In November 2013, it broke the 100 billion dollar mark in cumulative overseas sales. As of March 2017, Hyundai E&C is working on as many as 821 projects in 59 countries, maintaining a strong foothold in the global market.

8 2014년 극한을 넘는 열정 남극 정보과학기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인류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미답(未踏)의 땅, 남극. 우리 회사는 1988년 3월 대한민국 최초의 남극 과학연구기지인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한 데 이어 2014년 2월 두 번째 남극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를 세웠다. 장보고과학기지는 남극 대륙 동남단 테라노바 베이의 브라운닝(Browning)산에 위치해 있다. 총 면적 4458㎡ 규모의 장보고과학기지 공사는 총 1.2단계에 걸쳐 진행됐으며, 2012년 12월에 착공해 2014년 3월 완공됐다. 테라노바 베이에는 남극의 여름인 12월 하순부터 2월까지만 접근할 수 있어 실제 공사 기간은 6개월 남짓으로 짧았다. 우리 회사는 뛰어난 기술력과 도전정신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내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건설에 임했고,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쳤다. 현재 장보고과학기지는 제4차 월동연구단원들이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운영과 모니터링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Hyundai E&C successfully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its second research station in the Antarctic in February 2014. It had already established the King Sejong Station, Korea’s first research base in the South Pole, in March 1988.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4
2017.05/26/Friday

도전으로 세계를 품은 현대건설 대표 프로젝트

1947년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내외에서 3600여개의 공사를 수주한 현대건설. 우리 회사가 70년 동안 수주한 대표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 1947~1979년**
- 1958년 5월 한강인도교(한강대교) 복구
 - 1964년 7월 마포아파트
 - 1964년 6월 단양시멘트공장
 - 1965년 1월 양화대교
 - 1965년 2월 영일화학발전소 #1, 2공사
 - 1966년 12월 울산 비료공장
 - 1968년 2월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 1968년 12월 경인고속도로
 - 1969년 12월 한남대교
 - 1970년 6월 경부고속도로
 - 1971년 10월 남산서울타워
 - 1975년 9월 국회의사당
 - 1978년 4월 고리 1호기
 - 1978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변전소 설치공사
 - 1978년 12월 포항 종합제철소 건설사업
 - 1979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고속도로

- 1980~2010년**
- 1980년 6월 성산대교
 - 1980년 7월 김포국제공항 여객터미널
 - 1980년 12월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 1984년 2월 서산간척사업
 - 1984년 12월 싱가포르 몰라우테크 캠퍼스공사
 - 1985년 8월 말레이시아 페낭대교
 - 1987년 4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 1988년 2월 남극 세종과학기지
 - 1988년 3월 쿠웨이트 파이어힐 고속도로
 - 1988년 12월 캐나다 밴쿠버 스카이교량
 - 1989년 12월 이라크 요시고속도로
 - 1992년 2월 사우디 내무성 본청
 - 1992년 6월 청와대 본관
 - 1992년 10월 말레이시아 남북고속도로
 - 1995년 1월 서강대교
 - 1995년 7월 말레이시아 가스 정제시설 2-3-4단계
 - 1996년 1월 한빛 3-4호기
 - 1997년 7월 싱가포르 택터시티
 - 1998년 6월 방글라데시 지루나 교량
 - 2002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카심 숭전소 공사
 - 2005년 2월 이란 샤무스파 가스전 4-5단계
 - 2005년 12월 카타르 역삼철연가스 처리시설
 - 2006년 4월 현대오일뱅크 천연연소사업
 - 2006년 2월 새만금간척사업
 - 2006년 12월 리비아 자유무역항화학발전소 확장공사
 - 2009년 5월 서울숲 힐스테이트

- 2011년~현재**
- 2011년 4월 카타르 라스라판C 북방화학발전소 공사
 - 2011년 12월 베트남 비엠티코 파이어엔스타워
 - 2011년 12월 싱가포르 아리아스 퀘이타워 1
 - 2012년 3월 사우디 카란 가스 처리시설
 - 2012년 9월 카타르 5-6차 비료공장
 - 2012년 12월 사우디 마나비 115W 변전소 및 송배전 공사
 - 2013년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관
 - 2014년 2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 2014년 2월 쿠웨이트 부비안항만 1단계
 - 2014년 3월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 2014년 5월 현대그린파워 화학발전소 공사
 - 2015년 2월 사우디 마덴 알무미나 제철소
 - 2015년 5월 울산대교
 - 2016년 4월 카타르 아마드 메디시티
 - 2016년 8월 터키 보스포루스 제3대교
 - 2016년 11월 제2경동고속도로
 - 2017년 3월 현대모비스튜디오 교량
 - 2017년 4월 싱가포르 주공 석유비축기지 공사
 - 2017년 8월 모로레피시 석유
 - 2017년 9월 UAE 사브 역삼철연 정제시설 및 가스 처리시설
 - 2017년 12월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
 - 2018년 3월 인도네시아 사롤라지 열발전소 공사
 - 2018년 4월 우간다 진자 교량
 - 2018년 5월 싱가포르 3-4호기
 - 2018년 11월 쿠웨이트 세이프 지베르 코주웨이 해상철교
 - 2018년 12월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 크루즈 전용공장
 - 2019년 1월 싱가포르 루이스 핑크워터 매립공사
 - 2019년 4월 스리랑카 콜롬보 워터시티
 - 2020년 5월 UAE 라카라 교량
 - 2020년 8월 칠레 차코 교량
 - 2021년 2월 쿠웨이트 알주르 LNG 수입터미널

지난 70년간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그 맥을 함께하고 있는 현대건설. 국내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서 위용을 떨치고 있는 현대건설의 임은 그 어떤 위기도 기회로 만드는 그들의 고유한 도전정신에 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 온 현대건설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건설 말형으로서의 우직함 무게

창립 70주년을 맞아 현대건설의 역사를 되짚어 보기 위해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여덟 분을 모셨습니다. 현대건설은 1947년 창립 이후 1950~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중심에서 한국의 발전을 이끈 주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내 상황과 현대건설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춘림 회장 우리나라의 1950~60년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복원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있던 시기입니다. 당시만 해도 광화문 앞에 서면 동대문이 훤히 보일 만큼 서울은 아직 전후 복구기 되지 않았고, 도심이라 해도 변변한 건물 하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들은 파괴된 철도나 항만, 도로 등을 재건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맥

거리를 찾아야 했던 게 사실입니다. 박영욱 회장 그러니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는 우리나라에 4·19혁명이나 5·16군사정변 같은 굵직한 사건이 많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려움도 있었죠. 그래도 현대건설은 미군공병단 같은 주한미군 부대 건설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준비는 자연스레 하고 있던 셈이었습니다. 주한미군 부대 공사는 계약사나 도면, 공사 진행 등이 모두 영어로 진행했으니까요. 해외 공사나 다름 없었죠.

박찬규 회장 우리나라의 1950~60년대는 이미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위상을 확보한 현대건설은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의 전략 같은 최단기간 내 최소의 금액으로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었죠.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것이 최선이었어요.

김광명 회장 물론 해외 진출이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었어. 첫 도전이었던 태국 파타니 나라티와 고속도로의 경우 수익 측면에선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경험하고 해외 공사에 대한 건설의 손질이 덜지 않은 곳입니다. 이처럼 현대건설이 해외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최동식 회장 사실 현대건설은 해외 공사를 하기 위해 태어난 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60년대 이미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위상을 확보한 현대건설은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의 전략 같은 최단기간 내 최소의 금액으로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었죠.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것이 최선이었어요.

김광명 회장 물론 해외 진출이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었어. 첫 도전이었던 태국 파타니 나라티와 고속도로의 경우 수익 측면에선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경험하고 해외 공사에 대한 건설의 손질이 덜지 않은 곳입니다. 이처럼 현대건설이 해외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이춘림 회장 우리나라의 1950~60년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복원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있던 시기입니다. 당시만 해도 광화문 앞에 서면 동대문이 훤히 보일 만큼 서울은 아직 전후 복구기 되지 않았고, 도심이라 해도 변변한 건물 하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들은 파괴된 철도나 항만, 도로 등을 재건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맥

거리로 찾아야 했던 게 사실입니다. 박영욱 회장 그러니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는 우리나라에 4·19혁명이나 5·16군사정변 같은 굵직한 사건이 많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려움도 있었죠. 그래도 현대건설은 미군공병단 같은 주한미군 부대 건설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준비는 자연스레 하고 있던 셈이었습니다. 주한미군 부대 공사는 계약사나 도면, 공사 진행 등이 모두 영어로 진행했으니까요. 해외 공사나 다름 없었죠.

이춘림 회장 우리나라의 1950~60년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복원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있던 시기입니다. 당시만 해도 광화문 앞에 서면 동대문이 훤히 보일 만큼 서울은 아직 전후 복구기 되지 않았고, 도심이라 해도 변변한 건물 하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들은 파괴된 철도나 항만, 도로 등을 재건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맥



임들 앞에서 현대건설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춘림 회장 1970년대 오일쇼크는 이제 막 해외시장에서 실력 발휘를 하려던 현대건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마다 적자를 면치 못했죠. 열 사람이 있으면 열 사람 다 해외 공사는 이제 접어야 한다고 조인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정주영 명예회장은 달랐습니다.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기름이 부족하니 기름이 있는 나라로 가서 하면 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박영욱 회장 세계의 모든 돈이 중동으로 몰렸거든요. 중동 국가들은 돈이 생기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공사를 진행했고, 현대건설도 여기에 뛰어들 거죠. 그중 1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공사인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김광명 회장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실패하면 태평양에 빠져 죽겠다는 의지로 공사에 임했죠. 현승기 회장 원래 조선공학을 전공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현대건설에 입사해 삼일고가로, 남강·소양강 수문당 등 큰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현대그룹이 25만급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주전공인 조선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선소 건설 당시 우리 회사는 자본도, 기술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 초대형 선박을 띄우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25만급 선박을 바다에 띄웠을 때 그 감각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김광명 회장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실패하면 태평양에 빠져 죽겠다는 의지로 공사에 임했죠. 현승기 회장 원래 조선공학을 전공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현대건설에 입사해 삼일고가로, 남강·소양강 수문당 등 큰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현대그룹이 25만급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주전공인 조선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선소 건설 당시 우리 회사는 자본도, 기술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 초대형 선박을 띄우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25만급 선박을 바다에 띄웠을 때 그 감각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김광명 회장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실패하면 태평양에 빠져 죽겠다는 의지로 공사에 임했죠. 현승기 회장 원래 조선공학을 전공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현대건설에 입사해 삼일고가로, 남강·소양강 수문당 등 큰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현대그룹이 25만급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주전공인 조선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선소 건설 당시 우리 회사는 자본도, 기술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 초대형 선박을 띄우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25만급 선박을 바다에 띄웠을 때 그 감각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김광명 회장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실패하면 태평양에 빠져 죽겠다는 의지로 공사에 임했죠. 현승기 회장 원래 조선공학을 전공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현대건설에 입사해 삼일고가로, 남강·소양강 수문당 등 큰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현대그룹이 25만급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주전공인 조선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선소 건설 당시 우리 회사는 자본도, 기술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 초대형 선박을 띄우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25만급 선박을 바다에 띄웠을 때 그 감각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원로들이 전하는 현대건설, 그뻘 그랬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고, 현대사에 들어서는 그 추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 무려 70년 동안이나 건재하는 현대건설에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당시엔 중요한 기준이며 문화였고, 이제는 소중한 역사가 된 그 시절 이야기들.

취준생 선호도 1위 기업

1958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박영욱 회장에 따르면 1950년대는 우리나라의 건설업에 매진하던 시기여서 건설회사들의 인기가 많았다. 그런 까닭에 청년들의 취업 1순위가 건설회사였고 그중에서도 현대건설은 소위 '엘리트' 야니들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인사 경쟁이 치열했다고. 당시 현대건설에 들어오려면 자신의 전공과 영어는 물론이고, 근무자의 자세, 눈술 평가 등 어려운 관문 통과해야 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임직원들의 자긍심이 높을 수밖에.

우리가 제일 잘나가

1961년 현대건설이 무교동에 첫 사옥은 당시로는 손꼽힐 정도의 고급 건물이었지만 건물이었다. 1960년대 무교동 3기로 입사한 이춘림 회장에 따르면 무교동은 현대건설 임직원들만 사생활에서 가장 주목받은 변화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무교동 여덟가나 현대건설 직원이라 하면 반갑게 맞아 주었다. 현대건설이 어떤 사생활이나 어떤가 피지고 개발을 할지까지는 건 지금도 변하지 않은 사실.

마냥 즐거웠던 환울 폭격

1970년대는 해외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큰 임찰을 때리기 시작한 현대건설의 호시성. 이에 상응해 달리는 쌍연만 갔다. 오죽하면 국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부에서 달러 수급을 나눠서 하려 했을까, 더욱이 그때는 환율이 저고 나면 오르면 시가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줄거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일에만 매달리느라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랐고 친한 친구 사서 퇴근하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이전이었다. 이런 환율 폭격이 어떤 면에선 환율이다.

김광명 회장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실패하면 태평양에 빠져 죽겠다는 의지로 공사에 임했죠. 현승기 회장 원래 조선공학을 전공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현대건설에 입사해 삼일고가로, 남강·소양강 수문당 등 큰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현대그룹이 25만급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주전공인 조선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선소 건설 당시 우리 회사는 자본도, 기술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 초대형 선박을 띄우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25만급 선박을 바다에 띄웠을 때 그 감각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김광명 회장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실패하면 태평양에 빠져 죽겠다는 의지로 공사에 임했죠. 현승기 회장 원래 조선공학을 전공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현대건설에 입사해 삼일고가로, 남강·소양강 수문당 등 큰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현대그룹이 25만급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주전공인 조선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선소 건설 당시 우리 회사는 자본도, 기술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 초대형 선박을 띄우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25만급 선박을 바다에 띄웠을 때 그 감각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김광명 회장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실패하면 태평양에 빠져 죽겠다는 의지로 공사에 임했죠. 현승기 회장 원래 조선공학을 전공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현대건설에 입사해 삼일고가로, 남강·소양강 수문당 등 큰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현대그룹이 25만급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주전공인 조선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선소 건설 당시 우리 회사는 자본도, 기술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 초대형 선박을 띄우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25만급 선박을 바다에 띄웠을 때 그 감각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김광명 회장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실패하면 태평양에 빠져 죽겠다는 의지로 공사에 임했죠. 현승기 회장 원래 조선공학을 전공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현대건설에 입사해 삼일고가로, 남강·소양강 수문당 등 큰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현대그룹이 25만급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주전공인 조선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선소 건설 당시 우리 회사는 자본도, 기술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 초대형 선박을 띄우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25만급 선박을 바다에 띄웠을 때 그 감각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김광명 회장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실패하면 태평양에 빠져 죽겠다는 의지로 공사에 임했죠. 현승기 회장 원래 조선공학을 전공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현대건설에 입사해 삼일고가로, 남강·소양강 수문당 등 큰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현대그룹이 25만급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주전공인 조선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선소 건설 당시 우리 회사는 자본도, 기술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 초대형 선박을 띄우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25만급 선박을 바다에 띄웠을 때 그 감각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수명이 있다.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과 사람의 차이점은 사람에 비해 기업의 평균수명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100년은 물론 몇백 년 동안 영속해 온 기업들의 장수 비결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의 사업 분야와 속한 국가, 성장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장수 기업들은 탄탄한 경영관리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유지하며 환경에 따라 혁신을 거듭해 왔다. 글=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4
2017/05/26/Friday

100년 기업의 조건 기술력과 혁신으로 돌아가는 성장엔진은 멈추지 않는다

장수기업의 조건

『100년 기업의 조건(Going the distance)』의 저자 케빈 케네디와 메리 무어는 세계 기업들의 평균수명은 단 13년으로, 30년이 지나면 80%의 기업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어느 정도 성장해 대기업이 된 기업에도 미래의 생존은 보장되지 않는다. 맥킨지 컨설팅의 분석에 따르면 'S&P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들이 머무르는 기간 또한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1930년대에는 평균 65년 정도 S&P지수에 머물렀으나, 2000년 이후에는 10년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세계화의 확산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기업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목표는 이제 '이익극대화'가 아닌, '영속적인 성장과 생존'으로 바뀌어야 할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기업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산업화의 역사가 일정한 우리나라에서 100년 이상 장수한 기업의 수는 2개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산업선진국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영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수는 한 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장수기업만의 성장과 생존 노하우를 파악하고 이를 경영전략으로 체화할 필요가 있다. 100년 이상 생존한 기업들을 분석한 몇몇 연구들이 제시하는 장수기업들의 특징은 대동소이하다. 종합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100년 기업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조건으로 '해당 분야에서의 독보적 경쟁력'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100년 이상 성장하고 생존하려면 단순한 '경쟁력'이 아니라 '독보적'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즉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 명가(名家)로 자리매김할 정도의 기술경쟁력이 있어야 장수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독보적 경쟁력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의 결과이므로 장수기업은 해당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조건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변신 능력'이다.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라 모든 산업은 변명과 쇠퇴를 겪는다. 또한 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법이다. 기업은 항상 자신의 성장엔진을 점검하고 그 수명이 다하기 전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

해야 한다. 『살아있는 기업(The Living Company)』의 저자 아리드 호이스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장수기업 연구한 결과, 27개의 세계 최고 장수 기업들은 그들의 생애를 통해 평균적으로 최소 한 번씩은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의 성과나 현재의 사업 분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변신 능력은 듀폰(Dupont), 스토라엔소(Storaenso) 등 글로벌 장수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이다.

셋째 조건은 '안정적인 지배구조'다. 기업이 100년 이상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 장수 기업들 중 가족기업이 많은 것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단순히 가족 내 세대 간 원활한 승계를 통해서만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능력 있는 CEO에게 경영권이 승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업문화를 갖추어야만 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지배구조도 안정될 수 있다. 대부분의 장수기업은 차기 CEO 육성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가족기업이라 하더라도 가족 중 마땅한 후계자가 없을 경우 전문경영인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일은 장수기업에서 드물지 않다.

마지막으로는 '재무건전성'을 들 수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 경영성과의 부침(浮沈)과 환경변화로 인한 재무적 위험은 항상 뒤따르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흔히 말하는 '흑자 도산'도 재무적 위험관리 실패의 결과다. 멸망한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과도한 채무에 의존하다 도산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취약한 재무건전성으로 인해 도산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그 예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장수기업들은 투자 기회가 포착되는 경우 충분한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신속한 투자를 단행한다.

세계의 장수기업



화학공장에서 종합화학회사로, 듀폰(Dupont)

조일류 글로벌 화학회사 듀폰(Dupont)은 1802년 미국 델라웨어의 작은 화학공장에서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사용한 탄약의 40%를 공급했을 정도로 화학회사로 성공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1930년대 대공황기를 돌파하기 위해 화학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한 결과, 나일론을 비롯한 각종 혁신적인 제품들을 개발하면서 첨단 섬유·소재회사로 탈바꿈했다. 1969

년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시 우주인이 입었던 우주복도 듀폰의 특수소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듀폰의 변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생명공학, 식량 및 바이오산업의 발전 미래를 보고 듀폰은 1999년 세계적인 종자회사 파이오니아를 인수했고 마침내 2004년에는 핵심 사업이었던 섬유사업을 매각했다. 그 이후 듀폰은 여러 차례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를 꾀해 '종합 과학회사'로의 성공적인 변신을 이루어 냈으며 현재는 바이오 부문이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50년 역사의 유리 명가, 폰 포싱거(von Poschinger)

폰 포싱거는 1568년 독일 바이에른에서 설립되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지만 4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시장에서 생존해온만큼 '유리제품의 명가'로 불릴 만하다. 폰 포싱거는 범용 유리제품보다는 주문제작 유리(custom and specially-made glass)에 있어 유럽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폰포싱거 가문은 일찍부터 도제식 교육을 통한 장인 육성에 힘을 쏟았으며 지금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고의 장인이 만든 최고의 수제품으로 폰포싱거의 명성을 유지해 온 것이다. 많은 가족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가족 간 불화로 기업이 쪼개지기도 하는데, 폰포싱거는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적절히 배려하면서 CEO 승계 과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 이것이 450년 동안 경쟁력 있는 가족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중의 하나다.



을 폐고 산림 및 제지 관련업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

스토라는 1998년 핀란드의 삼림회사 엔소(Enso)와 합병해 스토라엔소(Storaenso)라는 이름으로 이 분야 최대기업으로 거듭났다. 합병 전 스토라는 2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230만 헥타르의 산림 및 7.5 TWh 규모의 수력발전소도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 후에도 스토라엔소는 시대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꾀했다. 최근에는 바이오물질(biomaterials)과 재생 포장재, 재생 건설 자재 등의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투자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수백 년에 걸친 끊임없는 변신이야말로 스토라엔소의 장수비결이라 하겠다.



400년 건축 외길, 다케나카공무점 (竹中工務店, Takenaka Corporation)

다케나카 공무점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회사다. 1610년 도베이 마사타카 다케나카라는 목수가 신사와 절을 지으면서 그 역사가 시작됐다. 유럽과 일본의 많은 장수기업들 중 한 분야에 특화된 가족기업들은 오랜 역사와 고품질을 자랑하지만 글로벌 대기업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기업이 많다. 하지만 다케나카는 가족기업 특유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수백 년 동안 건축 외길을 걸으며 글로벌 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한 흔치 않은 예다.

도쿄타워, 도쿄돔 등 일본의 대표적 건축물 중에는 다케나카의 작품들이 많다. 다케나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1960년 미국부터 시작돼 현재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20여 개의 현지법인 및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다케나카는 앞선 기술력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건축물을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장수기업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고효율 빌딩,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빌딩 등에 있어 탁월한 경쟁력을 보이면서 성장하고 있다.



1100여년 전에 제작된 폰 포싱거의 와인 용기. ©Madamadama,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2 다케나카 공무점이 건설한 도쿄의 상징, 도쿄타워. ©Kakidai,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2017년은 시인 윤동주(尹東柱) 탄생 100주년이다. 지난해에는 윤동주와 관련한 책과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다.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55년 판본을 그대로 복간한 시집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준익 감독은 지난해 윤동주와 사촌 송몽규 이야기로 영화 <동주>를 찍었는데, 저예산 영화였음에도 100만 관객을 넘겼다. 각각의 기획도 훌륭했지만 역시 윤동주라는 인물의 삶과 시가 시대를 뛰어넘는 울림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글=박성표 <글월> 대표 / 참고자료=윤동주 평전(서정시학)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4
2017/05/26/Friday

윤동주 탄생 100주년, 별을 노래하는 시인의 생애를 좇다

구김살 없던 꼬마 힙스터

윤동주는 1917년 북간도 명동촌(明東村)에서 태어났다. 명동촌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땅을 사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힘쓸 만큼 민족의식이 투철한 곳이었다. 당시 윤동주 집안은 기와집에 살 만큼 형편이 넉넉했다. 어린 시절 윤동주는 심성이 착했고, 서울에서 어린이 잡지를 구독해 읽는 것은 물론 친구와 원고를 모아 <새 명동>이라는 잡지를 만들기도 했다. 영락없이 동네 문화를 선도하는 꼬마 힙스터, 구김살 없는 착한 도련님이었다.

도련님 같은 인상은 1931년 북간도 연변 용정으로 이사하면서 조금씩 흐려진다. 윤동주 아버지는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사업에는 재주가 없어 가세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다. 윤동주 자신도 명동소학교를 졸업하고 은진중학교, 평양 숭실중학교 등을 거치며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꾸준히 시를 쓰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교내 축구선수나 농구선수로 될 만큼 활동적이기도 했다. 옷 맵시에도 무척 신경을 썼다.

당시 그의 시를 보면 요즘 말로 ‘중2병’에 걸린 듯 허세를 부린 티가 났다. ‘제물의 위대한 향내’ ‘황금, 지옥의 수평선’ ‘그윽한 유무’ 등 도통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인 한자어가 난무했다. 그러다 1935년 윤동주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터진다. 동갑내기 사촌 송몽규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술가락’으로 콩트 부문에 당선된 것이다.

송몽규는 윤동주와 특별한 인연으로 엮인 존재다. 둘은 성격도 정반대에, 활동 방식도 달랐지만 늘 함께였다. 이후 대학도, 일본 유학도 함께 갔다. 윤동주는 문학보다 독립운동과 이상 사회 건설에 더 큰 뜻을 품은 송몽규가 자기보다 먼저 공식적으로 ‘문인’이 된 것에 질투를 느꼈다. 당시 윤동주가 송몽규를 두고 “대기는 만성이야”라며 버렸고, 자기 시에 완성한 낱자를 기록하며 정리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라 한다.

좌절된 청년의 꿈

문학에 뜻이 있고,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현재 연세대학교) 문과에 진학하려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뜻밖에 아버지가 반대한다. ‘문과를 나와 봐야 기껏 신문기자밖에 되지 못하니 생활을 위해 의대에 가라’고 한 것. 윤동주는 아버지의 뜻에 강력히 반대하며, 급기야 외박까지 했



윤동주 시인이 재학했던 연희전문학교, 현재의 연세대학교 안에는 윤동주 시인의 시비(詩碑)와 함께 그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다. 그의 반항에 결국 아버지도 허락하고 말았다.

연희전문에 다니던 때는 윤동주의 창의력이 가장 빛날 때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작 ‘별 헤는 밤’ ‘서시’ ‘자화상’ ‘십자가’ 등이 모두 이때 쓰여졌다. 원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윤동주가 연희전문을 졸업하면서 19편의 시를 묶어 한정판으로 출간하고자 했다. ‘서시’도 이 시집의 서두에 넣기 위해 썼다. 하지만 스승 이양하 교수가 만류했다. 태평양 전쟁까지 터지며 한층 살벌해진 분위기 속에서 제자의 안전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시인 지방생’으로 남아야 했던 이유다.

연희전문을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윤동주에게 아버지가 일본 유학을 권했다. 윤동주는 1942년 릿쿄대학 문과부 영문과에 입학했다가 그해 10월 다시 도시사대학 영문과로 편입한다. 이 학교는 정치용 시인도 공부한 적이 있어서 교내에 두 시인의 시비가 마련되어 있다.

지금은 시비까지 세웠지만,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 간 지 고작 1년 만에 일본 경찰에 체포된다. 함께 유학 온 송몽규가 일본 경찰의 중요 사찰 대상이었던 것이다. 윤동주는 방학을 맞아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차표까지 예약한 상태로 체포됐다. 이때 일본에서 쓴 시와 산문 원고를 모두 빼앗겼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쓰여진 시’ 이후 윤동주가 무슨 글을 썼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다.

일본 경찰은 송몽규와 윤동주가 유학생 사이에서 조선 민족정신을 취하고, 독립운동을 꾀한다는 명목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 사상범으로 독방에 수감된 윤동주는 1945년 2월 16일 해방을 고작 반년 앞두고 세상을 떠나고 만다. 영혼의 짝이었던 송몽규 역시 얼마 후 감옥에서 숨진다. 윤동주 아버지가 일본으로 건너와 시체를 인도받고 화장한 후 뺑가루만 담아 북간도로 돌아왔다. 고작 29세의 짧은 생이었다.

시대의 아픔으로 자신을 돌아보다

윤동주가 세상에 있던 시간이 워낙 짧아 시가 많지는 않다. 문학과지성사에서 나온 『정본 윤동주 전집』에 따르면 약 100여 편인데, 주요 시는 대부분 민족의 현실을 노래하거나, 자기 성찰을 담거나, 기독교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민족의 현실에서 자기 성찰을 끌어내기도 하고, 종교적 가치관이 민족의 현실과 연결되기도 한다. ‘십자가’에서 ‘모가지를 드리우고 /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 조용히 흘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종교적 신념일 수도 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암울해지는 조선을 위해 조용히 희생하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다.

우리는 윤동주의 비극적 일생 때문에 그를 ‘민족시인’으로 평가하곤 한다. 그렇지만 윤동주가 시에서 무엇을 노래하던 언제나 그 중심에는 자기성찰과 부끄러움이 자리하고 있다.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랐고, ‘별 헤는 밤’에서는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라며 스스로를 부끄러운 별레라 칭했다.

이전에는 윤동주만큼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자기 존재를 탐구한 시인이 없었다. 그를 애국자로만 규정하면 작품을 보는 시야가 좁아진다. 그는 시대의 아픔을 자기 존재를 돌아보는 성찰의 준거로 삼았던 특별한 시인이었다. 생명까지 앗아간 시대의 압력을 자기 안에서 단련해 ‘윤동주’라는 언어의 필터를 만든 셈이다.

윤동주는 시대의 아픔을 넘어 자기를 돌아보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노래한 시인으로 기억해야 마땅하다.

병원

-윤동주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운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 따다가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윤동주는 본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아니라 이 시를 표제로 하여 『병원』으로 시집을 출간하려 했다. 이후 제목을 바꾸었다가, 결국 출간이 무산되었으나 시대에 대한 윤동주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살구나무, 젊은 여자, 하얀 다리 등 첫 연에서 느껴지는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 다소 낯설어보일지 모르나, 하지만 흰옷을 입고,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가 시작처럼 고통을 시달리는 우리 민족임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윤동주가 떠난 지 70년이 넘었다. 그런데 그 병을 아직도 완전히 고치지 못했다. 위안부 문제만 해도 현재진행형이다. 나라 안팎으로 너무도 많은 일이 있었다. 오랜 시간 너무 많은 사람이 아팠고, 지나친 피로 속에서, 서로에게 성내기 바빴다.

이처럼 ‘병원’은 일제 치하라는 역사적 맥락을 넘어, 오늘의 현실을 대입해 재해석할 수 있다. 윤동주는 자기 시대의 아픔을 꿰뚫어 보았고, 그 아픔을 남다른 감수성이 담긴 시로 남겼다. 아픔이 존재한다면 세월을 뛰어넘어 언젠가라도 윤동주의 시를 읽을 수 있다. 모든 위대한 문학이 그러하듯이.

‘서시’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별에도 생명이 있음을 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수명이 있다고 해야겠지만, 윤동주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자 했을 뿐이다.

윤동주가 나라 잃은 백성이라는 죄로 희생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그 희생을 기억하고, 타인을 힘과 권력으로 억압하는 제국주의에 분노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그의 시마저 모두 민족이라는 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의 정신에 따라 시대의 아픔으로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 그것이 다음 세대가 부끄럽지 않게 윤동주의 시를 읽는 방법이지 않을까.



1930년대 평양 숭실중학교 시절 교복을 입은 윤동주 시인(뒷줄 오른쪽).

아름다운 우리말로 자기 존재를 탐구한 윤동주... 그는 시대의 아픔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시인이었다.

적당한 햇살과 미풍이 살랑이는 6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직전은 야외 축제를 즐기기에 그만인 계절이다. 게다가 싱그러운 초여름 날씨는 축제의 낭만과 재미를 한층 더할 것이다. 가족과 연인과 친구의 손을 잡고 축제의 현장으로 떠나자. 망설이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글=이은아
※ 소개된 축제의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은 주최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4
2017/05/26/Friday

6월을 즐기는 네가지 방법 *Early Summer Outdoor Festivals*



음악과 함께 특별한 캠핑을 레인보우 아일랜드

자타공인 국내 캠핑의 성지, 자라섬에서 펼쳐지는 올나이트 음악 축제다.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자라섬의 밤을 만끽하며 텐트에 누워 노래를 듣거나, 캠프파이어를 즐기며 낯선 사람들과의 유쾌한 만남을 기대할 수 있다. 짙은 녹음 사이로 쏟아지는 아름다운 선율과 북한강 한가운데에서 묵는 캠핑의 묘미는 상상만으로도 황홀하다. 청춘 남녀들의 데이트 코스로 딱일 듯하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고 주저할 필요는 없다. 초록빛으로 둘러싸인 드넓은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사이, 어른들은 편하게 음악을 감상하면 될 테니까. 음악, 캠핑, 놀이가 어우러진 레인보우 아일랜드는 다채로운 라인업을 자랑한다. 뛰어난 자작곡 센

스로 음원 차트를 섭렵한 매력적인 듀오 '볼빨간사춘기', 흥겨운 레게 음악의 본좌와 만능 엔터테이너가 팀을 이룬 '스컬&하하', 달달한 목소리와 잔잔한 기타 반주로 여심을 녹일 '에디킴', 페스티벌 섭외 1순위 록밴드 '고고스타', 한국형 레게밴드 '김반장 과원디시티' 등이 일찌감치 자라섬행을 예약했다. 티켓은 공연 관람만 가능한 '입장권'과 캠핑을 포함한 '캠핑권' 두가지 종류로 판매한다. 축제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다.

일시 6월 3일(토)~4일(일)
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
문의 010-3360-7846 www.rainbowfestival.co.kr

'수맥' 한잔 할까? 대전수제맥주&뮤직페스티벌

수입 맥주를 능가하는 양질의 우리나라 수제 맥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맛을 뽐낸다. 축제에 참가하는 양조장(브루어리)은 모두 15곳이다. 대전을 대표하는 바이젠하우스, 울산의 화수브루어리, 강원도의 브라이트바흐, 부산의 갈매기브루잉, 경기도의 카브루 등 전국 수제 맥주 업체들이 저마다 특색 있는 제품을 소개한다. 맥주와 어울리는 별미인 치킨, 타코, 피자, 감자칩, 소시지 같은 먹거리 업체도 다수 참가한다. 1인 1만원인 현장 티켓을 끊으면 성인 인증 후 190mL 시음권 3매와 자유롭게 맥주를 구매할 수 있는 확인 팔찌를 제공한다. 원하는 부스를 선택해서 시음하거나 필요한 만큼 맥주를 사면 된다. 맥주 한잔 들고 음악에 맞춰 흥겹게 들썩이다가 옆에

앉은 이와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 초여름 밤에 시원한 맥주 한잔의 목넘김이 그리운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러 보자. 축제의 흥을 돌출 공연팀도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신인 아이돌 걸그룹 아이시어·여자여자·스위치 베리와 아이돌 보이그룹인 K2P·브이엑스·에이플의 공연 및 인디밴드, DJ 퍼포머스가 매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축제 운영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다.

일시 6월 2일(금)~4일(일)
위치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광장
문의 1661-5869 www.weizenhaus.com



전곡항으로 뱃놀이가간다 화성뱃놀이축제

하얀 요트와 보트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는 아름다운 선착장, 화성 전곡항을 배경으로 뱃놀이 축제가 벌어진다. 축제 명칭에 걸맞게 메인 이벤트는 승선 체험이다. 152km의 해안선을 따라 유람선, 크루저 요트, 파워보트, 카누, 카타마란 같은 배를 타고 물살을 가르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아이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다양한 탈거기도 준비된다. 손으로 돌리는 패달보트, 물총 놀이가 가능한 펀보트, 아찔한 재미가 있는 수상자전거 등이 어린 참가자들의 발길을 잡을 전망이다. 온 가족이 참여하기 좋은 10여 종의 체험도 진행된다. 해안가 굴곡진 부분에 독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는 '독살 물고기 잡기', 바다해설사와 함께하는 '갯벌 바지락 캐기', 운동도

하고 전신 머드팩도 할 수 있는 '머드 발리볼', 용감한 자가 대어를 낚는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등이 대표적이다. 놀다가 지치면 쉬어갈 수 있는 문화 공연도 풍성하다. K-POP, EDM, 록 공연이 펼쳐진다. 뱃놀이의 여흥을 축제 현장에서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캠핑장 예약을 추천한다. 파도 소리와 어우러진 야간 통기타 음악회가 낭만의 밤을 선사할 것이다. 일부 체험은 유료로 진행된다.

일시 6월 1일(목)~4일(일)
위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일원
문의 031-355-0963 www.hs-festival.co.kr

만개한 보랏빛 물결의 향연 고성 라벤더축제

매년 6월이면 강원도 고성의 한 언덕은 온통 보랏빛으로 물든다. 라벤더의 물결이다. 5월 중에 피어나기 시작하는 라벤더는 6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절정을 이룬다.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지는 보라색 물결은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꽤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그래서 라벤더밭은 종종 '인생 사진'을 건지는 명소가 된다. 또한 풍부한 향기라는 꽃말에 걸맞게 라벤더의 은은한 향기는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라벤더 향기에 빠져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 보자. 축제 기간 중에는 라벤더 향수 추출 시연, 라벤더 피자 만들기, 라벤더 향 주머니 만들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음악회, 시화전, 포도 콘테스트

등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아로마 셰퍼드 전문가의 라벤더 활용법 강의와 하니라벤더팜 대표의 라벤더 재배법 강의도 준비된다. 각 체험과 행사는 운영 시간과 체험 비용이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축제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일시 6월 1일(목)~21일(수)
위치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꽃대마을길 175
문의 033-681-0005 www.lavenderfarm.co.kr



호랑이띠 두 친구가 뭉쳤다!

한옥과 식물이 조화로운 카페 타이거타이거



1 싱그러운 식물들로 꾸며진 내관. 2 아보카도와 토마토, 모차렐라 치즈가 가득 들어간 본조르노 샌드위치.

타이거타이거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0길 27-132층
영업시간 평일 11:00~24:00 (금·토요일 새벽 1시까지, 일요일 밤 10시까지)
문의 02-747-1986



한옥카페 타이거타이거 외관 전경.



아인슈페너와 수제 티라미수.

창경궁에서 종묘 쪽으로 길을 건너면 권농동이란 동네가 나온다. 오랜 세월 이곳에서 터 잡고 살아온 주민들과 부푼 꿈을 안고 최근 정착한 젊은 사장들이 어우러진 이곳에 타이거타이거가 자리하고 있다.

타이거타이거는 1986년생 동갑내기 두 친구가 의기투합해 오픈한 한옥카페다. 이들이 처음 인연을 맺은 건 2013년 겨울.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던 김도훈씨는 한 모임에서 바리스타 임민호씨를 만났다. 나이도 같고, 관심사도 비슷했던 두 사람은 금

세 친해졌고 '젊음'이란 자산을 토대로 지난해 말 권농동에 카페를 오픈했다.

타이거타이거는 식물카페를 표방한다. 매장에 들어서면 싱그러운 녹색 식물과 꽃들이 먼저 손님을 맞는다. 테이블마다 작은 화분이나 드라이플라워, 생화가 놓여 있다. 주인장들에게 식물이 많은 이유를 물으니 한옥 인테리어에는 화초와 꽃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았단다. 플로리스트가 1주일에 두 번 카페를 방문해 꽃을 관리할 정도로 실내 조경에 신경 쓴다고도 덧붙였다.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답게 메

뉴 하나하나에도 개성이 엮보인다. 타이거오레는 커피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음료다. 믹스커피 같은 달달한 맛이 특징으로, 젊은층에서도 의외로 많이 찾는다고 한다.

주스도 인기다. 대표 메뉴로는 딸기, 바나나, 파인애플, 사과를 블렌딩한 핑크레이디와 오이,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사과가 들어간 시크릿가든! 물과 시럽을 일절 넣지 않아 건강하고 맛있게 마실 수 있다. 요깃거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샌드위치, 디저트 메뉴도 준비돼 있다. 저녁에는 음주도 즐길 수 있

다. 기네스 생맥주와 다양한 국적의 생맥주, 와인 등도 판매하니 퇴근 후 마음 맞는 동료와 함께 가 봐도 좋겠다.

글=박현희 / 사진=이슬기

현대건설 임직원들을 위한
special event
현대건설 사원증을 제시하면
아메리카노 1+1
6월 한달간



글/그림=웹툰작가 손하기

*ENR: 전년도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전 세계 상위 250대 건설사를 선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70년의 역사를 발판 삼아 현대건설의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축하인사를 보냈다.
국내 및 해외 곳곳에서 봄바람을 타고 날아온 임직원 축하메시지를 전한다.



아즈리 대리 원자력사업단

열정으로 이룬 현대건설의 70년! 회사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많은 선배의 땀과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큰 발전을 이루길 바라며,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도 회사 발전에 이바지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남일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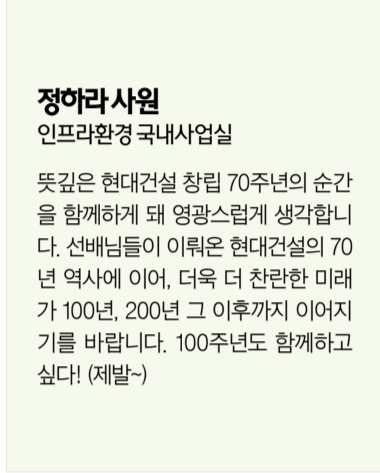
스리랑카 콜롬보 킬시티 프로젝트

창립 70주년은 기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굉장한 업적입니다. 이는 창립부터 현재까지 현대건설과 함께한 모든 임직원이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100년 기업이 드물고 변화가 빠른 현 시장을 고려할 때, 미래를 읽고 트렌드를 창조하는 현대건설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러벌 대리 인사실

현대건설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회사도 잘되고, 동료와 선배들도 잘되고, 저도 잘되고~ 우리 회사 및 회사와 관계된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라 사원

인프라환경 국내사업실

뜻깊은 현대건설 창립 70주년의 순간을 함께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이 이뤄온 현대건설의 70년 역사에 이어, 더욱 더 찬란한 미래가 100년, 200년 그 이후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100주년도 함께하고 싶다! (제발~)



정다운 사원

별내선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건설이 큰 뜻을 품고 걸어온 시간이 벌써 70년! 앞으로 걸어갈 길도 기대됩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3공구 현장에서 현대건설의 씩씩한 발걸음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서연배 과장 기술교육원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인생은 70부터’라고 합니다. 70대의 원숙미와 함께 늘 젊은 피가 끓어오르는 현대건설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현대건설! 파이팅!



현대건설 70번째 생일 우리가 함께합니다!



유진 대리 전력기획실

대한민국 건설사의 자랑스러운 현대건설의 70주년 창립기념일을 함께 축하하게 돼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또 자랑스러운 현대건설인이 되기 위해 늘 정진하겠습니다!

박율우 과장, 박현준 대리 전략추진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현대건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장수기업으로서 성숙한 기업문화를 선도하며,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계무대에서의 더 큰 활약도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70년이 더 기대되는 회사, 국가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 일하고 싶은 회사, 현대건설이 되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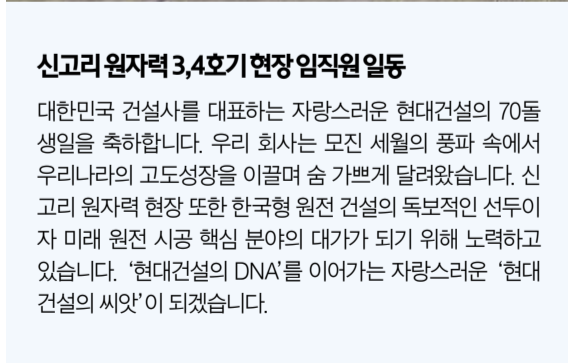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현장 임직원 일동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는 현대건설의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70년의 역사를 이어 나가고 다가올 창립 100주년의 주역이 되기 위해 이곳 여수 현장에서도 모두가 ‘현대건설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1등 건설사를 향해 승승장구하는 현대건설의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요셉 지브리 대리 카타르 국립박물관 신축공사

현대건설은 70년간의 유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카타르 국립박물관 신축공사라는 ‘World Iconic Project’를 수주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많은 직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카타르 국립박물관의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고리 원자력 3,4호기 현장 임직원 일동

대한민국 건설사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현대건설의 70돌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회사는 모진 세월의 풍파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을 이끌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신고리 원자력 현장 또한 한국형 원전 건설의 독보적인 선두이자 미래 원전 시공 핵심 분야의 대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DNA’를 이어가는 자랑스러운 ‘현대건설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 크루즈 정유공장 현장 임직원 일동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현대정신’을 바탕으로 70년간 대한민국 건설시장을 이끈 현대건설! 신화를 창조했던 현대건설은 이제 선진 회사들도 손사래 치며 떠난 중남미에서 또 다른 70년을 준비합니다. 함께 내일을 창조하는 기업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국가에서 더 좋은 삶의 기반을 창조할 것입니다.



심우태 차장 쿠웨이트 세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공사

대한민국 건설의 표준, 현대건설 70년의 역사를 존경합니다. 먼 땅 쿠웨이트에서도 진심어린 축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선사하는 현대건설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에이치 아너힐즈 현장 임직원 일동

현대건설의 70년 역사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자부심을 바탕으로 현대건설의 최고급 명품 브랜드 ‘다에이치 (THE H)’의 가치를 드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립 100주년이 되는 그날까지, 모든 현대건설인들 힘내세요! 파이팅!